

## Same Prophecies, Different Fates (Jer 26:16-24)

\* 이 자료의 소유권은 BIBLIA에 있습니다. 그러나, 교회나 사역지에서 사용하시는데에는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. 혹시, 이 아이디어로 학문적인 아티클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 아이디어를 개방합니다.

예레미야 26-36장 사이의 이야기들은 기록된 연대나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.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아직 제가 페이퍼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,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페이퍼를 써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각주없이 제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### 1. 법정에 선 예레미야 (상황이해)

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, 마치 실로처럼 폐허가 될 것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예언이었습니다.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성막(또는 성전 יהוה היכל)이 섰던 곳입니다. 종교적으로 불경스러운 예레미야의 예언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재판이 벌어집니다.

의견이 둘로 갈라지는데, **고관 שרים** 과 온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"여호와와 이름"으로 예언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, 제사장과 반대파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전을 모독하였다는 것입니다.

그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중재자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장로 중의 몇사람입니다. 이들은 히스기야 시대 미가 선지자의 판례를 들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오히려 맞을 수 있다는 것을 "법리적으로 증명"합니다. 재판은 이렇게 끝났습니다.

## 2. 기랏여아림의 우리야

기랏여아림에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.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**우리야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합니다.** 마찬가지로 이 선포를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야를 죽이려합니다. 그런데 **우리야를 죽이려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난번 예레미야의 재판 때에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주었던 고관들 **מַשְׁרֵי** 이 있습니다.** 얼마전까지 예레미야의 의견에 동의했던 고관들이 왜 갑자기 생각과 태도가 달라졌을까요?

## 3.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

우리야의 적대자들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 **우리야의 반응은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.** 여호야김은 이집트까지 쫓아가서 우리야를 잡아오지요. 여호야김과 이집트의 관계는 매우 미묘합니다. 아버지 요시아가 북쪽으로 진군하는 이집트의 느보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고, 이집트의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. 그러나 여호야김은 얼마되지 않아서 이집트를 배신하고 바빌론의 속국이 됩니다.

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은 **우리야가 바빌론의 편에 서있었던 유다왕국의 여호야긴에게**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고, 유다 내부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**이집트의 사주를 받아서 예레미야의 예언에 형식적으로 동참하였다는**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. 이집트와의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우리야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지자,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**이집트로 도망을 한 것이고, 예레미야는 순수하게 "여호와와의 말씀"을 전하는 예언자**이었기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관리들 **מַשְׁרֵי** 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.

#### 4. 결론

같은 예언을 말하고,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같이 보였던 두명의 선지자, 예레미야와 우리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. 예레미야가 전한 것은 "하나님의 말씀"이었고, 우리야가 전한 것은 "이집트의 정치적인 내분 정책"이었습니다.

#### 5. 적용

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피할 곳이 어디인가가 그 사람의 현재 신앙의 상태를 알려줍니다. 그가 숨을 곳이 이집트인가, 아니면 하나님인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.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,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판단도 동일합니다. 내가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, 교회의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고,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, 열심히 동참하고 있다할지라도, 그것이 "여호와 하나님" 때문인지, 아니면 "나의 신앙적이지 않은 이유" 때문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.